



# Issue Brief [No.12]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행일 : 2016. 8. 10. 발행인 : 현혜순

## 제주 정착주민 여성 전문 인력 활용 방향

이 화 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 Issue Brief

### Contents

- 1. 서론 / 2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
  - 나. 연구 방법 및 내용 / 3
- 2. 정착주민 여성의 일자리 현황 / 3
  - 가. 정착주민 여성의 특성 / 3
  - 나. 직업의 변화 / 4
  - 다. 사회참여 욕구 / 5
- 3. 정착주민 여성 전문 인력 활용 방향 / 6
  - 가. 전문 인력의 범위 / 6
  - 나. 정착주민 여성 전문 인력 활용 방향 / 7
- 4. 요약 및 시사점 / 12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제주지역 순유입 인구의 증가로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상생 및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한 의제로 대두됨
- 순유입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2010년 이후 제주지역 이주민은 여성의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20대, 30대 연령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음(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주민등록인구, 2016)
- 정착주민 적응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정착 주민은 고학력 비율이 높으나 정착 이후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착주민의 학력은 고졸이하 10.2%, 대졸이상 89.8%(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16)로 고학력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제주 정착이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약 53.8%를 차지함(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16)
- 더욱이 정착주민 여성의 경우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제주지역 사회에 적응도가 높고(적응됨: 남성65.3%, 여성 76.4%) 선주민과의 관계(5점척도 만족도: 남성 3.19, 여성 3.44)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여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모색이 필요함(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16)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에서는 경력단절 정착주민 여성의 전문성을 살리고 마을공동체 단위에서의 취업 및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내부자료. 2016)
-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정착주민의 전문 인력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구체적인 정착주민 여성의 일자리 수요 및 전문직 활용방안 관련 조사가 필요함
  - 정착주민 여성 및 관련분야 종사자의 의견을 통해 세부적인 전문분야 설정을 포함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방법 및 내용

- 정착주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일자리 현황 분석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16)
  - 제주지역 거주 정착주민 500명 대상 설문조사자료(raw data) 추가분석
- 정착주민 여성의 일자리 욕구과약을 위한 일대일 면접조사
  - 정착주민 여성(6명) 을 대상으로 선주민과의 상생 및 일자리 욕구조사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일자리 관련 기관방문을 통한 정착주민 여성의 일자리 욕구 조사

## 2. 정착주민 여성의 일자리 현황

### 가. 정착주민 여성의 특성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정착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여성은 241명(약 48.2%)으로 나타남
- 세대별 정착주민 여성의 분포는 40대(36.1%), 30대(30.3%), 50대 이상(22.4%) 순으로 30, 40대 여성이 많고 학력별로는 전문대/대졸이 77.6%로 가장 많아 전문직 여성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1〉 정착주민 여성의 인구분포 - 연령, 학력

(단위: 명, %)

구분	전체	고졸이하	전문대/대졸	대학원 이상
여성	241 (100.0)	28 (11.6)	187 (77.6)	26 (10.8)
20대	27 (11.2)	8 (3.3)	18 (7.5)	1 (0.4)
30대	73 (30.3)	3 (1.2)	60 (24.9)	10 (4.1)
40대	87 (36.1)	8 (3.3)	70 (29.0)	9 (3.7)
50대 이상	54 (22.4)	9 (3.7)	39 (16.2)	6 (2.5)

## 나. 직업의 변화

- 정착주민 여성의 정착이전과 이후의 직업의 변화를 보면 이주이전에는 사무/관리직(34.9%)과 자영업(14.5%)의 비율이 높았으나 이주이후에는 자영업(31.5%)과 1차 산업(12.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주이전에 비해 사무/관리직 비율은 현저히 줄고 1차 산업과 자영업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제주에서 취업보다는 창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정착주민 여성의 직업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무직/관리직(일반 회사원 등)	공무원	1차 산업 종사	생산직/기술직/노무직	자영업	판매직/서비스직	전업 주부	학생	은퇴/무직	기타
여성	이전 (100.0)	8 (3.3)	84 (34.9)	3 (1.2)	5 (2.1)	12 (5.0)	35 (14.5)	34 (14.1)	17 (7.1)	24 (10.0)	7 (2.9)	12 (5.0)
	이후 (100.0)	5 (2.1)	21 (8.7)	2 (0.8)	31 (12.9)	16 (6.6)	76 (31.5)	28 (11.6)	18 (7.5)	1 (4.1)	13 (5.4)	21 (8.7)

- 정착이후에 종사하는 직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자영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0대(22.2%)와 30대(13.7%)에서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40대는 1차산업(17.2%)이, 50대 이상에서는 사무직(24.1%) 비율이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직이 줄고 1차 산업이나 사무직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착이후 학력별 직업의 변화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업 부문에서 고졸이하(25.0%)보다는 전문대/대졸(32.6%)이나 대학원 이상(30.8%) 높게 나타났음
- 주목할 것은 이주이후 1차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고졸이하(7.1%)보다는 전문대/대졸(12.3%)이나 대학원 이상(23.1%)의 고학력 집단에서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마을에 고학력 정착주민 여성이 상당수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 정착주민 여성의 직업 - 연령별, 학력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무직 /관리직 (일반 회사원 등)	공무원	1차 산업 종사	생산직 /기술직 /노무직	자영업	판매직 /서비스 직	전업 주부	학생	은퇴/ 무직	기타	
연령	20대	27 (100.0)	0 (0.0)	3 (11.1)	1 (0.4)	3 (11.1)	1 (0.4)	6 (22.2)	6 (22.2)	3 (11.1)	0 (0.0)	0 (0.0)	4 (14.8)
	30대	73 (100.0)	4 (5.5)	2 (2.7)	0 (0.0)	9 (12.3)	4 (5.5)	26 (35.6)	10 (13.7)	7 (9.6)	3 (4.1)	3 (4.1)	5 (6.8)
	40대	87 (100.0)	1 (1.1)	3 (3.4)	1 (1.1)	15 (17.2)	9 (10.3)	26 (29.9)	6 (6.9)	6 (6.9)	5 (5.7)	6 (6.9)	9 (10.3)
	50대 이상	54 (100.0)	0 (0.0)	13 (24.1)	0 (0.0)	4 (7.4)	2 (3.7)	18 (33.3)	6 (11.1)	2 (3.7)	2 (3.7)	4 (7.4)	3 (5.6)
학력	고졸 이하	28 (100.0)	0 (0.0)	3 (10.7)	0 (0.0)	2 (7.1)	3 (10.7)	7 (25.0)	3 (10.7)	2 (7.1)	3 (10.7)	2 (7.1)	3 (10.7)
	전문대/ 대졸	187 (100.0)	5 (2.7)	16 (8.6)	2 (1.1)	23 (12.3)	12 (6.4)	61 (32.6)	23 (12.3)	13 (7.0)	7 (3.7)	11 (5.9)	14 (7.5)
	대학원 이상	26 (100.0)	0 (0.0)	2 (7.7)	0 (0.0)	6 (23.1)	1 (3.8)	8 (30.8)	2 (7.7)	3 (11.5)	0 (0.0)	0 (0.0)	4 (15.4)

#### 다. 사회참여 욕구

- 정착주민 여성의 구체적인 사회참여 방식에 대한 조사결과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는 20대(51.9%)와 50대 이상(36.0%)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마을협동조합 등 협력사업 참여는 30대(38.0%)와 40대(45.9%)에서 높게 나타나 30, 40대 연령층에서 경제활동과 연관된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는 자원봉사(48.1%)와 자생단체활동(33.3%)을, 전문대/대졸이나 대학원 이상 자원봉사(전문대/대졸 26.9%, 대학원 37.5%)와 선주민과의 협력사업(전문대/대졸 45.6%, 대학원 20.8%)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집단에서 선주민과의 협력사업을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 정착주민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단위: 명, %)

		사례수	각종위원회 (자문, 심의등)	주민자치위원, 개발위원, 통리반장 활동	자생단체 활동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등)	마을협동조합 설립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기타
전체		233 (100.0)	13 (5.6)	12 (5.2)	36 (15.5)	71 (30.5)	92 (39.5)	9 (3.9)
연령 별	20대	27 (100.0)	0 (0.0)	0 (0.0)	5 (18.5)	14 (51.9)	7 (25.9)	1 (3.7)
	30대	71 (100.0)	3 (4.2)	4 (5.6)	11 (15.5)	18 (25.4)	27 (38.0)	6 (8.5)
	40대	85 (100.0)	4 (4.7)	5 (5.9)	16 (18.8)	21 (24.7)	39 (45.9)	0 (0.0)
	50대이상	50 (100.0)	4 (8.0)	3 (6.0)	4 (8.0)	18 (36.0)	19 (38.0)	2 (4.0)
학력 별	고졸이하	27 (100.0)	0 (0.0)	1 (3.7)	9 (33.3)	13 (48.1)	4 (14.8)	0 (0.0)
	전문대 /대졸	182 (100.0)	10 (5.5)	11 (6.0)	23 (12.6)	49 (26.9)	83 (45.6)	6 (3.3)
	대학원 이상	24 (100.0)	3 (12.5)	0 (0.0)	4 (16.7)	9 (37.5)	5 (20.8)	3 (12.5)

### 3. 정착주민 여성 전문 인력 활용방향

#### 가. 전문 인력의 범위

- 전문직이란 일반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직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봉사 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 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임
- 전통적인 전문직 분류 기준은 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기준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의 범위를 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전문가 뿐 아니라 준전문가를 포함하며 특히 제주 정착 이후 마을살이와 지역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주민과의 융합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는 여성을 포함함

〈표 5〉 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전문직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인문 및 사회과학전문가,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정보시스템 개발전문가, 정보 시스템 운영자, 통신 및 방송송출장비 기사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안전관리 및 검사원,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 및 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및 의료기사,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종교관련 종사자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대학 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기타 교육 전문가
	법률 및 행정 전문직	법률 전문가, 행정 전문가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인사 및 경영 전문가, 금융 및 보험 전문가,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기술영업 및 증개관련 종사자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디자이너,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 나. 정착주민 여성 전문 인력 활용 방향<sup>1)</sup>

### 1) 면접 대상 및 내용

- 조사내용은 정착주민 여성 일자리 욕구, 선주민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참여, 선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
- 면접대상자는 모두 8명이고, 2명은 여성 일자리 관련 기관 종사자, 6명은 정착주민으로 전업주부 (2명), 프리랜서(2명) 등 이며, 사례2만 상근직에 종사하고 있음
- 구체적인 면접 대상자의 특징은 〈표 6〉과 같음

1) 면접 대상자중 일자리 관련 기관 종사자 2명(사례3, 사례5)을 제외한 6명의 정착주민 여성의 면접내용을 정리함

〈표 6〉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결혼여부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비고
사례1	40대	기혼	전업주부	5년	제주시	
사례2	30대	미혼	숲 해설사	2년	서귀포시	
사례3	50대	기혼	공공기관		서귀포시	일자리 기관 종사
사례4	60대	기혼	프리랜서(교육)	4년	서귀포시	퇴직교사
사례5	40대	기혼	공공기관		제주시	일자리 기관 종사
사례6	40대	기혼	문화예술	6년	제주시	
사례7	30대	미혼	프리랜서(출판)	4년	제주시	마을사업 참여
사례8	40대	기혼	전업주부	3년	제주시	협동조합 관련 업무

## 2) 정착주민 여성의 구직현황<sup>2)</sup>

### ○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현황

- 최근 정착주민여성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률이 선주민보다 월등히 높음
- 장년층(60대 이상)은 취미생활과 사람 사귀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중년층 이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취업의지가 강함

### ○ 일자리 욕구

- 취업을 원하는 직종은 강사, 컴퓨터 관련 등 전문직이나 서비스 직종이 많음
- 여성이 취업 가능한 사업장은 4대보험이 보장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보니 창업이나 강사를 선호함

### ○ 정착주민 여성 자원 활용방안

- 정착주민 여성의 학력, 능력 등을 포함한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 작성, 지역에서 강사로 활용 가능한 인력풀 필요함
- 정착주민 여성은 당연한 것을 새롭게 인식, 상품화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형태의 마을사업에 참여, 선주민과의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함
- 마을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 중요, 선주민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

2) 제주시와 서귀포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와의 면담내용을 정리하였음



### 3) 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선주민과의 소통 방안<sup>3)</sup>

-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인 부녀회의 경우 정착주민에 대한 명문화된 진입장벽은 없으나 기존의 공동체 문화에 적응이 어려워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부녀회의 역할은 마을 환경정화, 꽃 심기, 청소, 행사지원, 축제에 물건판매 등 봉사 및 지원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시간이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부녀회가 주체적으로 마을단위의 지원 사업을 하기 힘든 현실임
- 마을공동체의 주요 사안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개발위원회는 주로 연령이 높은 남성으로 구성되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간혹 부녀회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뚜렷한 성별위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정착주민 여성이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려면 우선 마을의 규범과 문화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하지만 마을공동체의 성별위계적인 특성상 많은 한계가 있음
- 정착주민 여성이 기존의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기보다는 이주민끼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소통강화를 위해서는 정착주민이 기존의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관계형성이 필요함, 이는 기존의 견고한 공동체와는 달리 중간단계의 다소 느슨한 공동체 의식으로 조금씩 차이를 좁혀 나가는 형식의 소통구조일 수 있음
- 선주민과 정착주민 여성의 관계향상을 위해서는 학부모 활동이나 제주의 문화, 역사, 생태 등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선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3)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관계에서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과 협력방안 관련 내용은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16)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보고서 참조

#### 4) 협력사업 추진과정

##### ○ 정착주민 여성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제작

- 정착주민 여성 중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살이를 통하여 선주민과의 융합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마을공동체에 참여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자발적인 사람에 한하여 선주민과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관련활동에 참여할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작성이 필요함

##### ○ 소통 및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 기존의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정착주민과 선주민 여성의 소통을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함

##### ○ 마을공동체에서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고 정착주민 인력 활용

- 정착주민 여성과 선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에서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착주민 여성의 활동이 가능함
- 현재 마을의 생활개선회나 영농조합단위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 등 사업에 지원금을 받고 일손이 모자라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방치된 사업에 정착주민 여성이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 부녀회나 청년회 같은 전통적인 조직에 의존하지 않은 공동육아나 돌봄센터 등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정착주민과 선주민 여성이 협력해서 만들 수 있음
- 부녀회에 전문성이 있는 정착주민으로 행정인력을 지원할 필요 있음, 부녀회는 행정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과 같은 행정 및 기획 업무나 정보 활용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착주민은 시간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음

#### 5) 전문 인력 활용 분야

-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정착주민 여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선주민과의 협력사업 개발이 가능하며 구체적 사례는 <표 7> 과 같음

〈표 7〉 정착주민 여성 전문 인력을 활용한 협력사업 영역

영역	배경 및 필요성	인력활용방안
방과 후 교실 등 공동육아	· 농촌지역에 방치된 아이들 많음, 주변에 학원이 없어 방과 후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시스템이 필요함	· 정착주민 여성 중 교육 관련 전문가의 자원 활용
마을구성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행정·민원서비스	· 농촌지역 고령층 등 정보이용 및 행정·사무업무에 미숙한 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필요	· 정보이용 및 사무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 활용 · 마을 소식지 제작 등 공동체 소통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개발
농산물 유통 및 가공분야	·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농산물의 포장 기술을 포함한 유통 및 마케팅 기술관련 컨설팅 필요	· 감귤 등 농산물 직거래 및 가공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활용
뷰티 및 건강 서비스	· 경조사가 많은 제주지역의 특성상 각종 행사나 잔치 참여를 위한 헤어 및 미용 관련 수요 많음 · 건강케어 서비스 : 농촌지역 여성 및 노인층의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관련 복지 서비스 필요	· 미용 및 뷰티 관련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서비스와 교육을 병행함 · 마을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 제공 가능 ·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농촌지역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물리 치료, 올바른 건강 상식 교육, 간단한 마사지법 등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
마을체험 등 관광분야	· 지역의 문화, 자연, 농산물 등에 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여행 상품 개발이 활발해지는 추세 ·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마을에 관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마을의 고유가치 브랜드화 필요	· 청년인구가 적은 중산간 마을에 세대간의 단절을 좁힐 수 있음 · 문화및 예술분야의 이주민 전문인력을 활용한 협력사업 전개
인력센터 운영	· 농촌지역에 농번기, 특히 감귤 수확철에 일손이 모자라 육지에서 인력을 수입 하는 등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 있음	· 상시적 인력센터 운영으로 정착주민의 인력풀을 통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정착주민의 인력 활용이 가능
플리마켓 공동참여	· 이주민 증가로 플리마켓 활성화에 따라 지역 내 소규모 경제 및 문화활동 가능	· 수공예품 제작, 전통음식 개발 등 선주민과 이주민의 공동작업으로 플리마켓 참여를 통한 유대강화

## 4. 요약 및 시사점

-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여성가족연구원, 2016) 추가분석 결과 40대와 고학력 여성이 제주 이주이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에 이주하는 여성이 상당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30-40대 연령과 고학력 집단에서 선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정착주민 여성과 선주민간의 협력사업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 남성보다 여성이 선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여성의 친화력으로 선주민과의 새로운 공동체 구성이 가능하며 마을의 구성원들과 소통증진을 통하여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이 요구됨
- 정착주민 여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의 협력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공동체 역할의 한계 및 선주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중간단계의 결속력을 가진 새로운 방식의 관계형성과 소통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착주민 여성이 선주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이 가능한 구체적 사업 영역으로는 교육, 정보 및 민원제공 서비스,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뷰티 및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착주민 여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선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음
-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협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공감대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성(gender)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